광주 아버지 합창단

▶최석부 지휘자와 한근영 반주자가 광주 아버지 합창단원들에게 기술적 부분을 지도하고 있다.

▼전용우 사무국장이 솔로 곡을 부르고 있다.

희망을 부른다

30~60대, 회사원·교수·의사 등 직업 다양

불우이웃 도우며 문화수도 광주 알림이 표방

제주 국제 합창제 장려상…'아마추어 반란'도

지난 21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드림컴퓨터 3층 '광주아버지 합창단' 연습실. 밤 8시가 되자 중년의 중후한 남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양복 정장을 차려입은 이도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이들지만 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20여명의 남성들이 모여들자 최석부(43)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주옥같은 가곡과 가요, 오페라가 꿈결처럼 한여름 밤을 수놓는다.

이들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광주아버지 합창단 회원들이다.

매주 월요일 밤 8시에 모여 노래를 통해 힘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고,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문화 알림이를 표방하고 있다.

순수한 아마추어 음악가들로 이뤄진 광주아버지 합창단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지친 가장들에게 음악을 통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40명으로 창단됐다.

10년의 연륜이 쌓일 동안 50명의 회원을 갖추게 된 광주아버지 합창단은 창단 이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어져 왔다. 양로원·정신병원 등 시설을 찾아 위로 음악회를 열었고, 작지만 경제적 도움도 주면서 음악을 통해 힘든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 그렇다고 동호회 성격의 봉사활동만을 지향하지는 않았다. 매주 월요일에는 25~30명이 모여 2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한 덕에 전국에 당당히 이름을 알린 수준높은 합창단으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국제합창제' 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합창단을 제치고 지방팀으로는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은 50명 회원들 모두 잔칫날이었다. 다른 팀들은 6개월 전부터 맹연습을 통해 대회에 출전했지만 광주아버지 합창단에게는 꿈같은 일이었다.

30대~60대까지 교수, 의사, 회사원, 교사, 사업가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단원들이기 때문에 모두 모여서 연습을 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1주일에 2번 가량 하는 연습은 직장에서 걸려오는 호출이나 잔업때문에 '펑크'가 나기 일쑤였다. 연습도중 병원에서 호출이 와 수술대에 서야 했던 의사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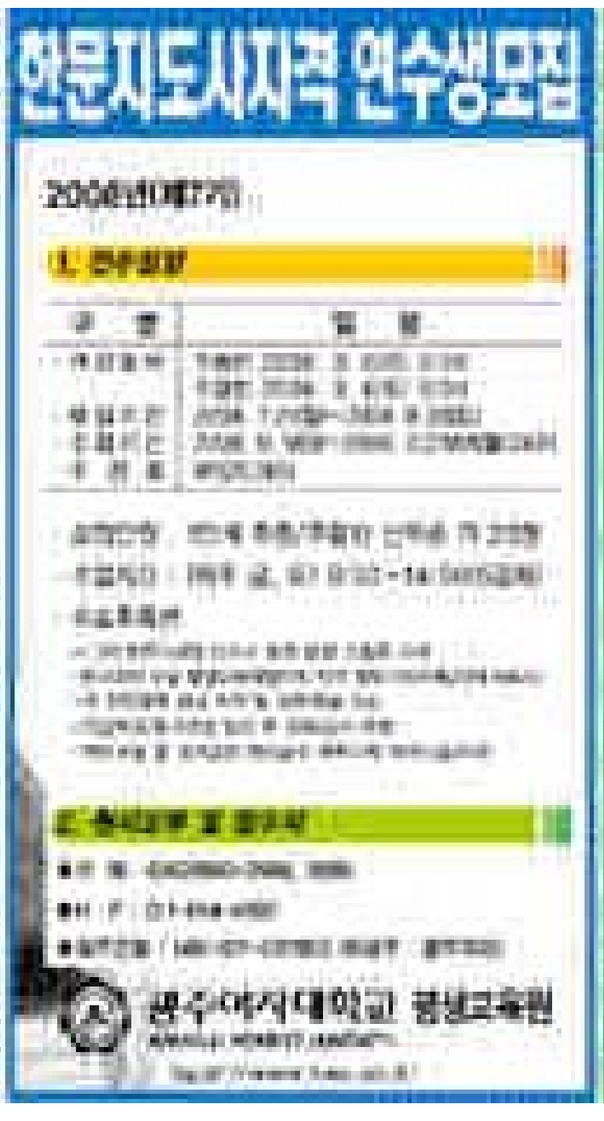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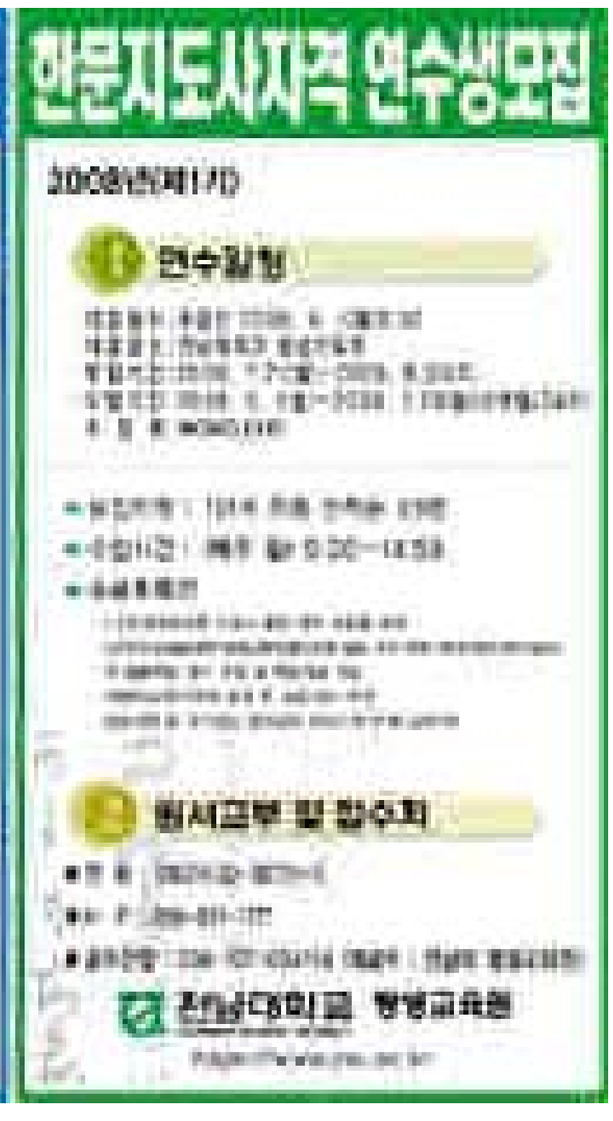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2개월여의 짧은 준비기간과 단원들 모두 비전공자인 점을 감안하면 '장려상'이지만 최우수상에 버금가는 상을 수상한것으로 자부한다.

정용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크고 작은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에서 수상을 해 단원들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며 "더 실력을 쌓아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단원들 중 솔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췄고 뛰어난 추진력으로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과 쌍벽을 이루는 김왕수 단원도 실력파로 이름이 높다.

신경외과 원장인 오민석 단장은 일에만 몰두하다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주변의 권유로 합창단에 가입해 이제 성악레슨을 받을 음악에 푹 빠져있다. 오 단장은 "노래를 못했으나 자꾸 연습하고 즐기면서 목소리가 개발되는 것을 느낀다"며 "호흡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건강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최단장과 함께 개인 레슨을 받으며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원들도 많다. 한세순. 조규용단원들이 그들이다. 병원을 경영하며 시간을 쪼개 음악과 함께 하는 이들은 "환자를 볼때도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고 웃었다.

광주대 겸임교수이자 광주아버지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최석부 교수는 "순수 아마추어 회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 화음을 이루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며 "남성 합창단의 약점인 음감을 좀 더 개발해 더욱 수려한 화음이 울려퍼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각박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마추어를 벗어난 고급 음악으로 음악을 전파하겠다는 광주아버지 합창단의 꿈이 완벽한 하모니로 메아리 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